



| 군중에게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 <렘브란트, 캔버스에 유채, 1635년 경. 베를린 국립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자세와 동작이 제각각이고 어수선하게 무리지어 있으며 자세한 표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다들 묵묵한 가운데 요한 세례자만이 외치고 있다는 것을, 성인에게서 반사하여 주변을 비추고 있는 빛이 알려준다. 군중의 대부분은 세례자의 호소에 관심이 없으며, 저마다 자기 불일을 무심히 보고 있다. 그림의 평온한 색조와는 대조적으로, 회개했다는 표시로 자선을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전갈에 귀를 막고 있는 이 구경꾼들의 모습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 오늘의 전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참조)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선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인께서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야말로 모든 자선의 으뜸이고 표준입니다. 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고마운 줄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제1독서 스바 3,14-18ㄱ 제2독서 필리 4,4-7 복음 루카 3,10-18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 12월의 신앙심천 캠페인 : 매일 작은 보속을 바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성근 요셉 신부 | 가톨릭의료원 교목실장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질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오는 군중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며 회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자(루카 3,7-9), 군중이 요한에게 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 줍니다. 먼저 일반 군중에게는 여분의 옷과 음식을 나눠주는 자선행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례자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는 정의로운 처신을 말해 줍니다. 끝으로 군인들에게는 갈취하지 말고 자신들이 받는 봉급에 만족할 것을 지시합니다.

어떤 설교가가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비행기를 두 대 가진 사람은 한 대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또 “만약 자키에게 요트가 두 대 있다면 하나는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설교가의 열변에 수천 명의 군중이 박수를 보내며 그 말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호응에 용기를 얻은 설교가는 더욱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키 옷장에 코트가 두 벌 있는 사람들은 한 벌은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어야 하고, 신발장에 구두가 두 켤레 있는 사람은 하나는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박수는커녕 아무도 설교가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행기나 요트는 없었지만, 자기 집에 코트나 구두는 다 두 벌 이상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자선은 부자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가진 것을 나누는 ‘자선’은 회개의 징표로서 자신이 드러내는 삶의 양식입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전제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중에 필요하겠지,’ ‘언젠가 쓰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여기 저기 모아둔 군더더기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 여분의 군더더기들이 웅졸한 자만심일 수도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서 내세우는 허영심일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한탄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군더더기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 회개의 삶 속에 진정한 ‘자선’과 정의로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147**

201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자선주일 담화문(요약)

“사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모든 신자가 가난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을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차리게 하기 위해 제정한 자선 주일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자선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다운 자선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미국에 이은 유럽의 경제 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바로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정책을 책임진 이들이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종교적 자선 행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 행위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보여 주는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자선은 단순히 선행을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가톨릭교회가 지닌 사회적 책임을 표명하고, 개인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선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선 행위를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랑으로 참다운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자유와 품위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9-37 참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마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랑의 발걸음으로 다가가 아낌없이 가진 바를 나눕시다. 대림 시기는 우리 가운데 힘없고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로운 때입니다.

2012년 12월 16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운 회 루카 주교

‘믿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의미

문차숙 라파엘라 | 만촌3동 본당

어느 회식자리에서 서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안면이 있는 한 남성이 내게 농담을 했다. 저들 끼리 2차를 가면서 나를 보고는 대뜸 “저 모태 신앙인은 당연히 빠질 거지요?”라고 했다. 나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사실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의미도 잘 모른다. 그런 말이 있긴 한가? 분명 그의 눈은 ‘저 술도 못 마시면서 놀 줄도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 고리타분한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갑자기, 처음 듣는 말이라 어이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의 말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어 슬그머니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 멀리서 저들끼리 “아이다. 저 사람 절에 다닌다...”, “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보은(報恩)의 손길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될 무렵, 홀몸이 된 가난한 여인에게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모녀는 전쟁의 와중에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상태에 이르렀다. 그 때 한 구호단체 직원이 모녀를 찾아내 음식을 제공했고, 모녀는 구호물자 덕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그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누볐다. 그녀의 구호 활동은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한 것이었다. 어느 콘서트에 특별 초대되어 자신의 명성이 자선기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그녀가 먼저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다. “이제 제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저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영화배우가 바로 <로마의 휴일>에서 만난 세기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은막의 스타 오드리 헵번이다. 어릴 적 저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누군가의 자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명배우의 화려한 연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죽기 직전 맞은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자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유언처럼 읽어 주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기 위해서는 친절할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라.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는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아이가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위해서는 너 자신이 절대 혼자 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기며 걸으라. ...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두 번째 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헵번**

금주의 성인 **성녀 루치아**



성녀 루치아 (12월 13일)

박해시대 로마의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신 루치아 성녀께서는 일찍이 평생을 동정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나, 과부였던 성녀의 어머니가 강제로 어느 귀족 청년과 혼인하게 하려 하였다. 성녀께서는 동정의 서원을 지키고자 혼약을 파기하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파혼에 격분한 그 귀족 청년이 성녀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법정에 고발하는 바람에 성녀는 재판을 받고 참수형으로 순교하셨다. 눈병 앓는 이들의 수호자이신 성녀의 이름은 라틴 말로 빛을 뜻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눈이 아프거나 침침하면 ‘산타 루치아!’를 연발한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22일 토요일은 (故) 서정덕 알렉산델 보좌주교님 11주기입니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1.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4.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obo.or.kr>)
5. 문 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8, 3074

‘신앙의 해’ 기념 **신앙수기 공모전**

1. 공모주제 :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3. 1. 1.(화) ~ 13. 2. 28.(목)
4. 출품방법 : 월간 <빛> 홈페이지 (<http://www.lightzine.co.kr>) 신앙수기 공모 코너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5. 문 의 : 교구 월간 <빛> 편집부 (053) 255-8405, 250-3157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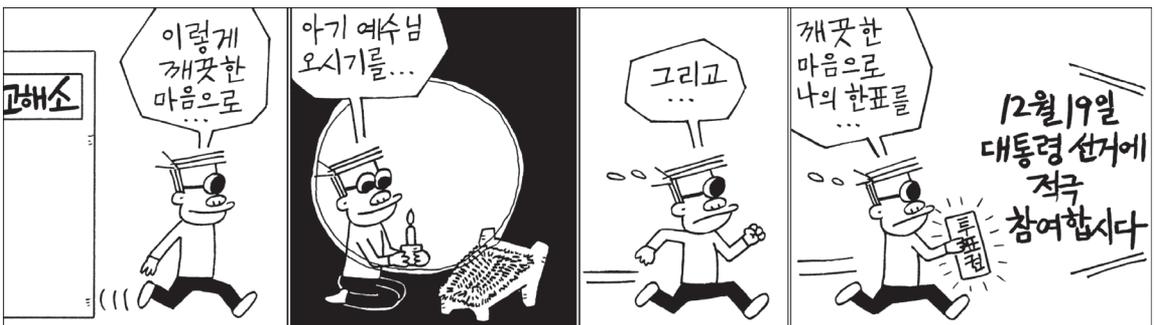
■ ‘나눔의 기적’ 자선 경매 수익금 전달식



12월 7일(금) 오전 11시 교구장 대주교님 집무실에서 평화신문 주관 ‘나눔의 기적’ 자선 경매 수익금 전달식이 있었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이날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마리아린 다씨와 로사리아씨에게 경매 수익금 1,050만 원을 반반씩 전달하시고, 어렵지만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당부하셨다.

참된 목자를 위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영어 신약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2.30(일)16:00~13.1.1(화)16:00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소: 오순절평화회수녀회

루하피정의집

문의: (055)351-2286 / (011)758-3572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기간: 1.18(금) 13:00~20(일) 16:00

대상: 중·고등부, 일반부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회비: 1만 원

문의: (010)5490-5345

렉시오디비나(성독) 2013 입문피정

제31차: 1.23(수)~27(일) (4박 5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피정의집

지도: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

피정비: 27만 원 / 인원: 40명

문의: (054)971-0722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겨울피정

초·중·고등부 단체 환경피정 / 8만원

1.7~9, 1.14~16, 1.21~23, 1.28~30

개인 및 가족 행복론 피정/ 6만 5천원

1.4~6, 1.11~13, 1.18~20, 2.1~3

문의: (033)333-8066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2.18(화) 14:00, 신암성당

12.19(수) 10:00, 죽도성당

12.19(수) 14:00, 성토마스성당

문의: (02)3673-2525

교육 | 모집

송년 성음악 묵상과 강복

일시: 12.29(토) 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 성당

문의: (070)4266-0045

2013 맨발 가르멜 재속회 회원모집

첫째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주 월요일 (010)4733-1715

예술치료사 과정 모집

개강: 2013년 3월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과정: 통합예술치료사, 미술치료사

자격증, 배우처 자격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기간: 1.3(목)~2.14(목) 13:00~17:00

접수: 12.3(월)~24(월) <http://klu.cu.ac.kr>

대상: 2년·4년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문의: 850-3767, 3160

감성과 음악으로 만나는 나

일정: 1.26~27(1차) / 3.23~24(2차)

5.4~5(3차) / 7.6~7(4차)

대상: 18세~34세 (미혼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교육관

신청: (010)2649-2045

2013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모집

학과: 신학과, 회화과, 환경조각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

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기간: 12.21(금)~26(수)

문의: (032)830-7012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1시	순례자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12월 18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송월타올
* 인 쇄 무 료 *
이영웅(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해드립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힐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박규욱(바오로)
전문의/원장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이원 의료기
협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옥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원장 박성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053)241-8275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
허리통증 인증관절
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배덕두 정형외과 T.053)425-5919

**의사가 보약 피오러 오는
원방한의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고등부 · 고3등 · 재학생 · 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256-630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 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행사 | 모임

대구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일시: 12.18(화) 10: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교육원 가동

내용: 1부 미사, 2부 개소식, 3부 특강 사랑을 나누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53-9991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1대리구 초등학생 편편볼런티어 모집

일시: 1.10~24 (매주 목요일)

9:30~12:30 / 총 3회

내용: 초등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대상: 초3~6, 회비: 5천 원

장소: 1대리구청, 426-7212

24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1.19(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원 수강생모집

모집: 12.17(월)부터, 개강: 1.7(월)부터

과정: 성가대지휘, 성가반주법, 음악레슨 등

문의: 660-5553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1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3(목) 19:00~20:30 월3만원

과정: 창세기, 마르코 (화,목 저녁)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13회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1.2(수) 출발 (8, 12주)

2차: 2.28(목) 출발 (8, 12주)

3차: 3.24(일) 출발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신앙의 해 가두선교 단원모집

대상: 신심 깊고 신명 나게 선교할 분

신청: (사)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이판석 신부, 781-6100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방법: 내방, 전화, 사이버 상담

문의: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5~6

제5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7(월)~11(금)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텔레인팅

채용

월배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2.18(화)까지

문의: 636-1302

안내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재길(안셀모), 천희정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광고 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 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 3074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20년경력)
서울 엘리트 회원 다량 보유
이원교(요안나) | 평양결혼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전문: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힐곡 I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김동익(요한)

대구안과
마이크로 라식·에피 라식·알티산 렌즈
백내장 수술·녹내장·사시교정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053)651-2233
서부정류장에서 본리대거리 방향 300m 좌측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학교수 원장 박종원(소시오)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 IC 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유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문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현(라파엘)
(053)642-7575